관응스님은

교학-참선 두루 섭렵

92세 불구 '맑은 얼굴'

관응 스님은 부루나 존자에 비견될 만큼 불교교리와 설법에 탁월함을 보이시고 특히 유식학(唯識學)의 대가로 더욱 알려져 있다.

스님은 1910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1929년 상주 남장사에서 탄흥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금강산 유점사 대교과를 비롯해 일본 용곡대학 불교과를 졸업하면서 교학에 대한 지적 기반을 튼실이 쌓았다. 직지사, 김용사, 용주사 등 여러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쳐 온 스님은 지난 88년에는 더 이상 늙기 전에 강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전국의 수좌 · 학인들을 모아 〈선문염송〉 강의를 열기도 했다. 이 때 배출한 10여명의 강사들은 현재 전국의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92세의 고령이어서 법문과 강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인재양성에 대한 원력만큼은 변함이 없다. 관응 스님은 평소 사람 키우는 일에 원력을 갖지 않는 스님들에게는 비판을 가했고, 불교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스님들에게는 설쳐댄다고 불호령할 정도로 매도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관응 스님을 교학에만 치중하지 않았다. 한일합방으로 불교계가 혼란해지자 선수행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지닌 스님은 예순살 때 그만의 화두를 들고 천축산 무문관(無門關)에서 6년 동안 치열한 구도행을 하며 수행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황악산에 토굴 하나 지어 그곳에 계신 관응 스님은 여전히 맑은 얼굴과 형형한 눈빛을 지니고 있어 스님을 친견하는 불자들에게 무언(無言)의 진리를 설파하고 계신다.



◇97년 9월4일, 관응 스님은 두문불출 15년만에 처음으로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 '한국불교 중흥 영산대법회'에서 대중 법문하셨다.

'나'에 집착할수록

삶과 죽음에 걸리고

눈 멀고 귀 막혀

진리와 멀어져요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모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이며 이는 곧 인생철학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현상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주만물이 성(成) · 주(住) · 괴(壞) · 공(空)의 법칙에 의해 유전하듯 인간도 생로병사의 법칙에 의해 삶과 죽음의 명암을 이룹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해져 발음이 어눌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님의 설법은 막힘도 걸림도 없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듯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자유자재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간 법문을 해 왔으면서도 아직까지 한번도 법문 준비를 미리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미리 준비하는 법문은 참된 법문이 아니라는 것이 스님의 법문 철학인 셈이다.

"법회는 불자들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자기를 희생시켜 중생과 한 몸이 되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찌 법회장에 온 불자들의 심상을 보지 않고 미리 법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사가 법문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꼴이지요.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만으로 미리 법문을 준비하는 법사는 불법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면목을 찾으려면 욕망의 집착에서 먼저 벗어나야 하는 법입니다."

불자들의 알음알이를 잘 살펴 그에 적합한 설법을 해 오신 스님은 불교교리 특히 유식학의 뛰어난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스님의 설교적 재능은 부처님의 제자 '부루나 존자'에 비견될 만큼 탁월하다고 한다.

한 때 스님 슬하에서 공부한 정휴 스님(구미 해운사 주지)은 "스님에게서 받은 첫 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신라의 뛰어난 예술이 빚어낸 반가사유상에서나 느낄 수 있는 내밀한 미소를 볼수 있었다"며 "해박한 경전 지식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논리 전개는 나의 학문의 허기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교학에 밝으신 관응 스님은 항상 "스님을 부처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셨다. 60년대 용주사에서 주지를 하면서도 강사를 자처해 학인들을 가르쳤던 일, 80년대 직지사에서 〈선문염송〉 강의를 열어 오늘날 각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10여명의 강사를 배출한 것 등은 인재 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학에도 뛰어났지만 스님은 선(禪)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환갑의 나이에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여 동안이나 두문불출하며 수행한 일은 지금도 승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무문관이 어떠한 곳인가. 사방이 막힌 무명 속에서 모든 것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생사일여의 활로를 찾는 곳이 아닌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시방세계가 거대한 무문관이며 생활이 곧 참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수행론이다. 또 스님은 "참선 공부는 노장들에게 다년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덧붙이신다. 교학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 선공부는 글자를 떼어놓고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으면 헤매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인간의 6근을 지혜의 구멍이라며 나무가 뿌리를 통해 땅의 기운을 받아 성장하듯, 6근을 통해 깨달음의 씨앗인 지혜를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또 자기의 본성인 법신을 파악하여 체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일념으로 닦아야 한다고 수행의 중요성을 말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함정에 속박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대한 속박은 될지 모르나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자성까지 속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법신을 망각하고 무명과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인간적인 조건을 초극하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10여 년 전 관응 스님을 시봉한 혜현(상주 황령사 주지) 스님은 "스님은 컴퓨터 이상으로 엄청난 불교교리를 간직하고 계시지만, 항상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큰 스님의 이러한 겸손은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사표가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상좌를 잘 두지 않으신다. 스님을 스승으로 삼고자 여러 사람들이 찾아 왔지만 지금까지 출가시킨 상좌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가르칠 능력도 없는데 상좌를 많이 둬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것이냐"며 찾아오는 인연마저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불자들에게 "천당이니 극락이니 하는 헛된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마음의 등불을 켤 것"을 당부하는 스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산길을 내려와야 했다.

삼도봉, 대덕산과 더불어 소백산맥의 연봉을 이루는 황악산, 그 심장부에 '이 시대의 대강백' 관응 스님이 주석하고 계셔서일까 하산하는 길에 보는 산세 또한 지극히 자비스럽게 느껴졌다. 그곳에 계시다는 자체만으로도 수행심이 불 일어나듯 분발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이심전심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큰스님, 관응 스님은 그러한 분이다.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관응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중암 우측 봉우리에 위치한 묘고대. 김천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에는 스님의 영정을 비롯 여러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정원스님 (1)

해인사에는 올해 77세인 을축생 노스님들이 네 분 계신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겸 해인사 방장이신 법전 큰스님과 도견스님 정원스님 송월스님 이시다.

그중 호랑이보다 무서운 노스님이 정원스님이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승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석에서 얼굴이 화끈해지도록 야단을 친다. 스님은 법전스님께서 해인사 주지를 할 때 총무를 한동안 하셨다. 주지인 법전스님은 사중 살림살이에 거의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직 소임자들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원스님은 평소 활화산 같은 성격에다 소임을 보지 않을 때에도 대중 스님들의 승행과 종무소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많이 지적했는데 총무 소임을 보고 있었으니 더욱 꼼꼼하게 지적하고 더 많이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섭게 야단치고도 돌아서면 마음에 담아두고 재론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님의 담백하고 단순한 면을 좋아했다.

종무소 직원 중에 조양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일을 잘못 해 매우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다. 꾸지람을 듣고 훌쩍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든 스님은 퇴근후 기분전환도 시킬 겸

호랑이보다 무서운 스님

동안거땐 '잣까기 정진'

저녁공양을 사주겠다며 종무소 직원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가조온천에 갔다. 조양은 여직원이 저 혼자이다 보니 나올 시간을 잘 가늠하지 못해 늦게까지 목욕을 했다. 다들 밖에서 기다리다 지쳐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마침 무렵에야 조양이 나타났다. "아새끼래 거저 눈치가 없이 이래 어름하네" 조양은 낮에 종무소에서 일을 잘못해 혼날때 보다 더 혼쭐을 뺐다. 다음날 출근한 조양이 "스님께서는 절 위로하려고 데리고 가서 멀쩡한 사람들만 위로하고 저는 되려 꾸짖기만 하십니까?" 하자 "거저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러는거 아니네. 점심에 짜장면 사주갔어" 하셨다.

전국의 모든 교구본사에서는 매년 연말 종무감사를 다닌다. 해인사의 말사는 공찰이 약 50개, 사찰(私刹)이 약 70개 있다. 3개조가 지역별로 나누어 약 1주일 가량 감사를 한다. 정원스님께서 총무하실 때 스님과 한 조가 된 사람들은 5분대기조 처럼 항상 긴장을 했다. 그때 정원스님 팀은 산청, 함양, 거창 지역을 맡게 되었다. 이곳의 사찰들이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의 골짜기나 능선에 자리하고 있어서 눈으로 갈이 막힐 경우에는 다니기조차 몹시 힘들뿐 아니라 식사시간을 놓치기는 예사였다. 한번은 날씨가 몹시 추운데다 눈까지 내렸다. 아침 일찍 나섰지만 산중의 눈길을 다니다보니 2~3개 사찰을 다니고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중에 점심 시간을 훨씬 지나고 말았다. 마침 순두부집을 발견한 직원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자고해서 스님께서도 동의했다. 순두부찌개를 시킨 후 찌개가 끓고있는 동안에 밥을 빨리 가져오라는 성화에 졸여 순두부찌개는 빼고 먼저 밥과 다른 찬만 가져왔다. 직원들은 순두부가 나오면 함께 먹으려고 천천히 먹고있는데 스님께서는 벌써 다 드시고는 "짧은 겟들이 밥 한 그릇 놓고 왜 깨작거리고 있네. 가자!!"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때 뭘 끓고있는 순두부찌개가 나오고 있었다. 스님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아는 직원들의 마음은 더욱 급했다. 성기사는 그때 먹었던 순두부찌개만큼 뜨거운 찌개를 이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지금도 말한다.

가야산에는 잣나무가 많다. 예전에는 잣수입이 사중재원의 중요한 몫을 차지했지만 요즘은 채취가 어려워 그렇지 못하다. 동안거 결제가 되면 산중의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정원스님께서는 동안거 결제가 되면 매우 특



별한 정진을 하신다. 청솔모가 따서 떨어뜨린 잣송이를 가을 동안에 몇 가마씩 주워 모았다가 망치로 두들겨 잣씨를 꺼낸 다음 이것을 깨끗이 씻고 알이 덜 여문 것을 골라낸 후 방바닥에다 펴 말린다. 이렇게 일차 고르고 씻어 말린 잣을 집게로 일일이 까고 다시 속껍질을 제거한 후 한번 더 건조하면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잣이 된다. 그 공정 과정을 수공으로 할 경우 잔손이 매우 많이 가는 작업이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몇 가마씩이나 되는 잣송이를 동안거 기간 동안에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손수 수공의 공정을 거쳐 잣까는 정진을 한다. 이렇게 까 모은 잣알을 찻통에 가득가득 담은 후 작은 공양이지만 먹고 공부 잘하라면서 사중의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일일이 한 통씩 나누어준다. 이런 과정을 잘 아는 스님들이 "어렵게 까셨는데 노스님께서 잡수시지요" 하면, 당신은 불같은 성격을 다스리는 인욕정진을 해서 좋고, 특별한 법력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렇게라도 정진한 공양물을 열심히 정진하는 대중들이 먹어주니 공덕되어 또 좋은 일 아니냐며 웃으신다. 대중스님들은 이 특별한 정진을 보면서 "그래, 그 불같은 성격 따문에 할 수 있는 정진이지" 하고 말한다.

■ 정취암 주지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圖像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癡 西翁謹書

■ 주천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